

“포교·수행·교육 완성할 것”

진각종 불교 교과서 발간... 인재불사 본격화

‘학술·학교의 불교적 확대를 위한 지원강화’를 2009년 종단 주요 사업으로 밝힌 진각종(총무원장)이 교육·인재발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진각종 교육원(원장 김정 정사)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종교(불교)>를 발간하고, 겸·인정(서울특별시교육감인정 2009-016-심·2009-018-심)을 마쳤다. 발간된 교과서는 진각종립학교인 진선여중·고등학교와 심인중·고등학교에서 수업 교재로 사용된다.

이번 교과서 발간은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1995년 이후 14년,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2000년 이후 9년만의 성과다. 때문에 교계 일각에서는 이번 교과서 발간이 진각종이 일선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신규 발간함으로써 청소년 포교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진각종 교육원장 김정 정사는 “종교는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항상 같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 강조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며 “이번 교과서는 학생들이 원호 대사와 다산 정약용과 같은 창조적인 글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창조적 사고체계’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진각종은 이를 위해 이번 교과서 편찬 시 ‘시간과 돈에 구애받지 말고 내용에 충실할 것’을 염두에 두고 교과서 내실강화에 힘썼다. 처음 교과서 편찬을 기획했을 당시 예상사업 기간은 6개월이었지만 실제로는 2년으로 기간이 연장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종교·불교·밀교·진각종 전문학자 9명

학생들은 특활 중 종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교재로 사용하게 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종교와 불교, 나아가 밀교·진각종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중에 사회인이 됐을 때 진각종을 다시 찾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연스러운 포교의 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사는 또 “앞으로는 현재 진각종 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제양성시스템(진각대학을 통한 기초교리 과정 및 교육부 교육을 통한 스승재교육 등)과 위탁대 불교학과와의 연계해 보다 원활히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수행을 중심으로 교육도 겸해지는 세계적인 국제수련원 건립도 추진해 포교·수행·교육이 완성된 진각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진각종은 현재 유아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국 각 심인당에서 자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교재인 <자성동아>를 발간하는 등 종단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1767년부터 종비생 제도를 운영해 불교인재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교과서 발간을 기점으로 불교인재 불사에 매진하겠다는 진각종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김진성 기자 yeam@buddhapia.com



진각종 교육원장 김정 정사.



<종교(불교)> 교과서.

이 각 담당부문을 집필하고, 윤독회를 거쳤으며 이후 실제로 교과서를 사용할 진선여·중고와 심인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이 6개월간 내용을 검토했다. 이렇게 완성된 내용으로 김정 정사와 학자들이 또한번 논의과정을 진행했다. 이전의 종교 교과서에서 내용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가톨릭·개신교·원불교 등에서 발간된 교과서를 참고했음은 물론이다.

김정 정사는 “이번 교과서는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정규수업 ‘종교’ 시간에, 고등학교

“범음 깊은 소리 전수에 온몸 바칠터”

육천범음대학 신입 학장 기봉 스님

“범음의 깊은 소리를 전하는데 혼신의 힘 다하겠습니다.”

3월 1일 제4대 육천범음대학 학장으로 임명된 기봉 스님은 “이수자들이 급급하지 않고 지속적인 배움으로 범음법계의 깊은 맛이 우려나올 수 있도록 재입학을 비롯한 대학문을 활짝 열겠다”며 “교육비 또한 10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일반인 인식 확산을 위한 사설교육기관 및 교양대학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천범음대학은 1969년 설립된 육천범음회를 모태로 한 영산재보

전회(종교무형문화재 제50호) 부설 전문교육기관으로 현재 구해 스님을 중심으로 학계 권위자들·각배·영산·작법 교육 등 후학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2007년부터 교과부 학점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등 체계화도 모색하고 있다.

기봉 스님은 1969년 송암 스님께 사사했으며 1981년 영산재를 전



수받고 1998년부터 전수교육자로 지정받았다. 현재 영산재보존회 연수원장을 겸하고, 베를린 세계종교음악축제, 국립국악원 50주년 초청공연 등 각종 시연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기봉 스님은 “부처님의 불법을 설하는 장엄을 표현한 범음법계는 불교문화재이자, 민족의 빛나는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문화유산이 후세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1대 송암·운공·벽봉 스님, 2대 구해 스님, 3대 일운 스님을 이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불교문화유산 전수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도 당부했다. (02)392-3234

노덕원 기자

“기도·협력·회향도량 일굴 것”

덕해 스님 천태종 인천 황룡사 주지 취임



3월 7일 황룡사 보문전에서 봉행된 제3대 주지취임대회.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3월 7일 황룡사 보문전에서 ‘황룡사 제3대 주지 취임대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前 총의회 부의장 월산 스님 등 종단 소속 스님들과 이학재 국회의원(한나라당)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정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선재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 큰 서원을 세우며 회향했듯이, 황룡사 신도들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용기와 지혜를 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날 취임 법회에서 제3대 황룡사 주지로 취임한 덕해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황룡사는 종합불교회관으로서 손색이 없는 도량”이라며 “앞으로 황룡사를 불자들이 24시간 정진할 수 있는 기도도량, 지역사회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협력 도량, 작은 일부터 실천해 큰일을 성취할 수 있는 회향의 도량으로 일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법륜승가대학 확대개편 후 첫 신입생 입학

태고종 법륜승가대학(학장 보경)은 3월 16일 전통문화전승관에서 2009학년도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번 입학식에서는 중앙승가전문강원이 초심사집, 사교, 대교의 5년과정 승가대학으로 확대개편 및 명칭변경한 후 첫 신입생 50여 명이 입학했다.

태고종 총무과장 월운 스님은 “태고종은 현재 교육불사를 2009년도 중점사업으로 두고, 중앙 및 지방 교육제도 개선 및 정비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륜승가대학은 보다 차별화된 승려교육으로 부처님의 교법이 널리 흥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은 16일 제34기 합동등도수계산팀 지원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소양시험과 신체검사를 진행했다. 시험결과는 태고종 홈페이지(www.taego.kr) 공지사항에 발표되며, 각 응시자에게도 개별 통지된다.

김진성 기자

“새로운 불국토 건설에 앞장 설 것”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창종 및 종정 취임 법회

한국불교법안조계종(총무원장 대현)은 3월 9일 수원 마이웨딩뷔페에서 ‘창종 및 종정 취임식’을 봉행했다.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번 법회에서 종정으로 취임한 윤봉 스님은 법어를 통해 “한국불교법안조계종은 앞으로 서로 인하여 서로가 행복해지는 가족 같은 종단, 새로운 불국토 건설에 앞

장서는 종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대현 스님도 창종선언문을 통해 “마음의 근원적 법칙(理)과 세계의 현상(事)은 둘이 아니다”라며 “이사원융(理事圓融)을 널리 흥포해 불법중흥에 이바지하고 상구보리 하회증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3월 9일 수원 마이웨딩뷔페에서 봉행된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창종 및 종정 취임식.

부여 미암사 원인불명 화재 발생

대한불교대각종(총무원장 만청) 미암사(충남 부여군 내사면 저동리)에서 3월 10일 저녁 10시 30분경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

미암사는 602년(백제 무왕 4년) 창건된 사찰로 대웅전 뒤편에는 세계 최대 규모 와불과 쌀바위(충남도 문인물 제371호) 등이 위치해 있다. 이번 화재로 미암사는 극락전 내부

495㎡(150여 평)와 점안식을 위해 모셔놓은 아미타불 입상(5m규모) 1점, 후불조각탱화 1점 등의 손실을 입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섬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육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제, 백일제 기도, 영가 천도제,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사찰 종합 보험 전문

사찰내외의 다양한 위험(화재 풍수해 도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 상해 질병의료비 보험 상담
-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담
- 은퇴 후 노후 설계 상담



종합자산관리사 (IFP) 이진우 합장 011-766-1001